



정교회주보

제2509호

2025.01.26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가 제 15 주일
성 크세노폰 수도자와
그의 가족
(제6조 • 조과복음 9)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수도자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님 입당 축일 시기송 164
- 사도경 : 디모테오 전 4,9~15 (봉)396
- 복음경 : 루가 19,1~10 13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진 설명

거룩한 제단

지성소 중앙에 자리한 거룩한 제단(사진-서울 성당)은 대리석이나 화강암 또는 나무로 만들어진다. 제단은 성당이 세워지고 봉헌된 후에는 절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사각형 모양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이 사방으로 퍼져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상징한다. 거룩한 제단에는 성체, 거룩한 복음경, 축복용 십자가, 거룩한 안디민손이 모셔져 있다.

또한 거룩한 제단은 그리스도의 무덤이며 하느님의 보좌이기에 제단 중앙에 놓인 복음경은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초대 교회의 카타콤에 안치된 순교자의 무덤에서 신성한 전례를 거행했던 것처럼, 성당 축성식 때 제단에 흠을 파서 순교자의 성해를 안치하고 밀봉한다.

제단의 지지대는 제단 중앙에 기둥 하나로 된 것은 온 세상이 의지하는 한 분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제단 모서리에 네 개의 기둥으로 된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4 복음서를 상징한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2025년 사목 지침서

주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존경하는 신부님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도 “성령의 은총이 우리를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관에 따라 정교회 한국 대교구와 일본 엑사르히아의 2024년 영적 사업 및 시설 설비 사업을 결산하고 2025년 재정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이 연례 의회에 모였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장수, 모든 영적·물질적 발전을 기원해주시며, 이 의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과 축원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제21회 정교회 한국 대교구와 일본 엑사르히아의 의회 주제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주님이시다. 주님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여라.”(신명기 6,4-5) 이는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복하여 일러주셨습니다. 마태오 복음사가(22,37)와 마르코 복음사가(12,29-30)는 예수님께서 이를 말씀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가복음(10,25-27)에 따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느냐?”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마태오 22,39, 마르코 12,31, 루가 10,27)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4-35)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요한 15,12)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언급하신 후에 덧붙여 하신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마태오 22,40)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걷기를 진정 원한다면, 이 두 위대한 계명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첫째가는 위대한 계명

그러면 첫째가는 위대한 계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다.”(요한 3,16)는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는 책무여야 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절대적인 신뢰로 하느님의 품에 나아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신적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망설임 없이 정확하게 이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는, 하느님께서 세상이든 어떤 존재나 사물보다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데, 이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합니다.”(1요한 4,19)

셋째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첫째가는 위대한 계명은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최고의 영적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직접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요한 14,15)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또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요한 14,21)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요한 14,23-24)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뜻을 지키

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따를 때, 우리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 삶은 그리스도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희생할 때만이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경험하듯, 희생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희생할수록, 그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사랑이 진실된 이유는 어머니가 매 순간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말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사랑의 복음사가인 요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 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1요한 3,18)

인간은 참된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완전함과 선함의 총만함이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모든 것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대를 초월하여,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누구보다도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된 하느님이십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삶 속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만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느님, 나를 지으신 주님 안에서만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성인이신 성 니콜라이 벨리미로비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 곁에서만 존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느님 외에 더 깊은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1월 30일(목)

성 대 바실리오스 대주교,
성 그레고리오스 신학자,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총대주교
3대 교부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설날 예배 안내

오는 29일(수)은 설 명절로, 교회에서는 조상들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예배 시간은 각 지역 성당에 문의 바라며, 풀리바를 준비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당에서는 9시 30분부터 성찬예배와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이번주 수요일 금식은 설 연휴로 해제됩니다.

■ 서울 성당 유아 세례성사

지난 주일(19일), 서울 막심 성당에서 남아 Sapsay Fedor가 로마 대신부의 집전으로 세례를 받고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알림

■ 제21회 대교구 의회

2025년도 대교구 의회가 지난 주일(19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서는 올해 사목 지침(“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리스도는 전부이십니다.”)이 발표되었고, 2부에서는 대교구 및 각 성당의 2024년 영적 사업 및 재정 결산, 2025년 영적 사업 계획 및 재정 예산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 대교구 겨울 수련회 안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대교구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2월 4일까지 각 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초, 중, 고등학생 : 2/11(화)-14(금) (참가비 9만원)
- 신데즈모스(예비신자 포함) : 2/14(금)-16(일) (참가비 6만원)
-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 가평 수도원, 슬라브 신자 방문

지난 18일(토), 로마 대신부와 슬라브 신자 약 35명이 방문하여 성찬예배, 소티리오스 대주교 묘소 추도식, 수도원 아래 개울에서 신현 축일 성수식을 거행했습니다.

또한 오찬을 나누고, 수도원 안팎 청소와 정리 봉사를 하고, 영적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故 마리아 봉사자 3주기 추도식

마리아 스피로블루 봉사자님의 안식 3주기 추도식이 서울 성당에서는 지난 17일(금)에, 가평 수도원에서는 지난 주일(19일)에 성찬예배에 이어 거행되었습니다.

한국 정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해주신 고인이 영원히 기억되시길 기원합니다.

■ 전주 성당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

지난 10일(금)-11일(토)에 주일학교 겨울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성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의 역사와 예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11일에는 무주 스키장에서 스키를 배우고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좋은 친교와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수고하신 선생님들, 학생들, 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